

SNS 속도문화와 창조적 저항:

비릴리오와 키틀러의 속도와 주체에 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강진숙*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속도의 권력화와 물질적 조건들에 대한 사상적 쟁점들을 탐구하고, SNS 속도문화와 창조적 저항의 형성 조건 및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비릴리오의 속도와 권력, 그리고 인공감각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해 키틀러의 속도와 미디어의 물질적 조건 형성 그리고 '정보기계'에 대한 독특한 이론적 견해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전제로 SNS 속도문화와 연관된 사회적 쟁점과 연구경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론뿐 아니라 이용자의 현실 인식을 고려하기 위해 질적심층인터뷰 방법을 적용하여 SNS 이용자들의 속도문화에 대한 인식 및 경험자료들을 수집,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SNS 문화연구의 다양한 접근방법 모색을 위한 탐색적 시도라는 점에 있다.

주제어: SNS, 트위터, 페이스북, 속도문화, 비릴리오, 키틀러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견고한 모든 것이 대기 속으로 녹아버린다’는 마샬 버만(1982/2004)의 근대성 경험은 아직도 유효한가? 1848년 역사의 격변기에 맑스와 엥겔스가 자본주의의 파괴력을 비판하며 던졌던 『공산당 선언』의 이 한 구절은 버만의 저서 제목이 되어 도시를 둘러싼 근대성의 경험으로 되살아난다. 근대성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위협적인 환경 속에서 상실감을 주었을 뿐 아니라 세계 변혁의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었다.

2012년 오늘날,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와 같은 디지털 기계들은 우리의 견고했던 습관과 사고방식을 녹이며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이고 상징적인 자본과 권력은 과거에 비해 더욱 강고해졌고, 공기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낡은 가치를 찬양하기에는 여전히 새로운 가치의 힘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미디어의 역할과 이용자의 행위 변화들을 기대하는 것은 그 불투명성 때문이다. 즉 낡은 가치와 새로운 가치 사이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연속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이야말로 탈정치화를 야기하는 지배담론과 자명한 통념에 균열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근대문명의 빠른 속도와 미디어의 출현에 대한 문화연구자나 미디어 사상가들의 학술적 관심은 주목할 만하다. 최근 들어 문화정치학적 연구의 관심이 부상하는 한국 사회의 학술풍토와 달리 유럽과 미국 학계의 경우, 미디어와 주체에 대한 연구는 양적, 질적 접근을 아우르는 풍부한 접근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예컨대, 마크 포스터(Mark Poster)(1995/1998; 1984/1989)가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지칭하는 ‘제 2미디어 시대’와 새로운 전자적 정보양식의 도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이용자의 새로운 위상에 대해 논했다면, 마누엘 카스텔(Manuel Castells)(1989/2001; 2000/2003)은 다양한

*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부교수(jskang1@cau.ac.kr)

사회학적 통계 자료들을 추출하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형성된 정보도시의 양극화 현상과 도시 빈민 계층의 문제들을 공간사회학적 측면에서 분석, 비판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유럽의 디지털 사상가이자 매체현상학자로 지칭되는 빌렘 플루서(Vilém Flusser)(1969~91/2004)는 새로운 매체환경을 기술적 형상에 기초한 ‘텔레마틱사회’의 도래라며 긍정적인 시선을 보낸다. 플루서에게 “텔레마틱 사회”란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노동이 자동화되고 양방향 채널들이 구축된 사회로 정의된다. 특히 “두 손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서로를 붙잡는 일이 가능해진 사회”(Flusser, 1969~91/2004, 233쪽), 즉 개방적으로 누구나 이웃관계가 가능해진 사회가 그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플루서는 엘리트주의가 만연한 기술적 형상시대의 대중적 기반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궁극적으로는 창조적 이용자의 실천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즉 창조와 수용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용자들은 자신의 ‘기술적 상상(Technoimagination)’을 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술적 상상은 개인의 능력에서 발현되지만, 그 개별적 상상들이 상호관계성을 획득하는 순간, 집합적 힘이 발생하게 된다. 사이버공간의 창조적 저항의 사례로서 평가할 수 있는 인터넷 청원운동과 10.26재보궐선거의 ‘인증샷 놀이’ 등은 이러한 기술적 상상의 발로이다.

이와 같은 미디어 사상가들은 서로 다른 관점과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관심사를 기준으로 볼 때 공통의 고리가 존재한다. 즉 미디어와 이용자를 주체와 객체, 혹은 송신자와 수신자라는 이원적 측면이 아닌 상호 연관적 시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용자가 미디어의 주체라는 휴머니즘적 명제를 비판하고, 나아가 주체가 미디어에 의해 구성되고 미디어와 함께 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는 구조의 일부분이라는 전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근의 정치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는 SNS문화와 이용자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속도에 대한 보다 전략적 논의가 요구된다. SNS를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변화의 중심에는 속도문화가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의 SNS 속도문화와 이용자 현상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사상가로서 폴 비릴리오(Paul Virilio)와 프리드리히 키틀러(Friedrich Kittler)를 들 수 있다. 물론 이 두 사상가들 역시 앞의 사상가들처럼 미디어와 이용자 간의 상호연관성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미디어의 속도나 시스템에 의해 주체가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디어가 국가 및 군산복합체의 권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속도를 규제하고 재조직화한다는 점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SNS 속도문화의 이론적 자원을 도출하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미디어의 사회적 주체 구성의 사유와 속도의 논리는 SNS 문화현상을 분석하는 데 풍부한 사유의 단초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이 사상가들은 속도 조절을 통한 이용자의 능동적 행위와 사회변화의 가능성을 소극적으로나마 전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SNS 이용자들의 실천적 행위와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릴리오가 『소멸의 미학』(1989/2004)에서 19세기 한 영화제작자에 의해 발명된 트릭효과에 대해 설명하듯이, 미디어 속도의 조율은 미학적 창조성을 표출하는 행위로서 평가된다. 또한 논란의 여지도 많지만 키틀러의 경우, 『축음기, 영화, 타자기』(1986)에서 제시한 타자기의 발명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주장은 매체결정론적 경향을 감안해도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과 이용자 변화와 관련해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속도의 권력화와 물질적 조건들에 대한 사상적 쟁점들을 탐구하고, SNS 속도문화와 창조적 저항의 형성 조건 및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비릴리오의 속도와 권력, 그리고 인공감각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해

키틀러의 속도와 미디어의 물질적 조건 형성 그리고 ‘정보기계’에 대한 독특한 이론적 견해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전제로 SNS 속도문화와 연관된 사회적 쟁점과 연구경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론 뿐 아니라 이용자의 현실 인식을 고려하기 위해 질적심층인터뷰 방법을 적용하여 SNS 이용자들의 속도문화에 대한 인식 및 경험자료들을 수집,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SNS 문화연구의 다양한 접근방법 모색을 위한 탐색적 시도라는 점에 있다.

2. SNS 속도문화와 쟁점

1) 속도문화의 관점과 사유

(1) 비릴리오의 드로몰로지: 속도의 권력화 비판과 창조적 저항

비릴리오의 속도문화에 대한 관점은 비판주의적 색채가 강하다. 그 이유는 스스로 전략적인 비판주의를 선택하여 속도로 인한 비상사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 이러한 관점은 주로 그의 저서들인 『속도와 정치』(1977/2003)와 『정보과학의 폭탄』(1998/2002)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두 저서들에서 비릴리오는 신기술의 미디어가 속도를 가속화하여 시공간의 경계를 넘는 원격 통신을 가능케 하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지만, 이러한 속도의 가속화 과정에서 자본과 권력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한편, 이용자 감각의 마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속도의 권력화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비릴리오는 속도 개념과 속도의 권력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비릴리오의 관심은 속도 자체가 아니라 속도의 가속화를 야기하는 지배와 경쟁의 논리이다. 『속도와 정치』에서 제시하는 속도이론은 비릴리오 스스로 말하듯이 ‘드로몰로지(dromologie)’로 통칭된다. 드로몰로지는 고대 그리스어 ‘드로모스(δρόμος)’와 ‘로고스(λόγος)’가 결합된 개념이다. 희랍어 사전(Morwood & Taylor, 2002; Feyerabend, 2005)을 보면, 전자가 “질주(running), 코스(course), 경주(race); 질주장소, 경주코스, 스타디움; 빠르게(swiftly, in rapid march) 달림”의 뜻을 지니고 있다면, 후자는 “말, 원리, 논리, 이성” 등을 의미하는 명사이다. 이처럼 사전의 뜻이 다양한 이유로 주로 신문기사나 연구자들에 의해 ‘속도학’으로 번역되는 이 비릴리오의 개념은 엄밀히 해석하면 “질주(경주)의 논리”(Virilio & Lotringer, 1997, p. 47)이다. 즉 질주의 논리가 전개된 혁명적, 사회 정치적 발전 상황을 예시함으로써 그 논리 자체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질주의 논리는 어떠한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가? 이 논리의 배경은 주로 손자의 전술론과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기초한다. 비릴리오의 드로몰로지가 흥미롭고 문제적인 이유는 존 아미티지가 비릴리오의 저서인 『속도와 정치』(1977/2003) 서문에서 언급하듯이 이 두 전쟁 사상가의 전쟁터의 전술과 전략론이 빚어낸 긴장감도 한 몫 하기 때문이다(Virilio, 1977/2004). 나아가 이 질주의 논리가 중요한 것은 과거 고대사회 뿐 아니라 현 시대의 사회적 현상까지 분석할 수 있는 논리를 창의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속도에 대한 비릴리오의 독특한 해석이 내재해 있다. 즉 그에게 속도는 하나의 현상이 아닌 현상들 간의 관계(Virilio, 1993/2007)이고 질주 곧 경쟁의 논리인

것이다. 이러한 논리들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관통하고 정보의 속도를 좌우하는 것이다.

그러면, 비릴리오의 질주의 논리는 속도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이와 연관된 다양한 논의들 중에서 두 가지 입장을 추출할 수 있다. 즉 지리의 종말과 비상사태에 대한 비판적 입장(Virilio, 1977/2004; Virilio, 1998/2002)이 그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속도의 조직화와 생산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Virilio, 1977/2004; Virilio, 1989/2004)이다. 우선, 전자와 관련해 비릴리오가 염두에 두는 것은 지리의 종말이다. 이제는 ‘도로와 장소를 누가 선점하는가’ 하는 지리의 문제 보다 ‘시간을 누가 빨리 전유하는가’ 하는 또 다른 전쟁의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비릴리오에 따르면, 공간의 전쟁에서 시간 전쟁으로의 이행, 그것은 세계경제의 속도가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경제가 공간의 단위에서 시간의 단위로 변했다는 것, 즉 시간의 전쟁”(Virilio, 1977/2004, 117쪽)이 부의 축적을 위한 경쟁논리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 전쟁의 상황에서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비릴리오가 언급하듯이 비디오, 컴퓨터, 홀로그래피의 발명과 함께 모순의 논리가 등장했다. 모순의 논리란 사물이나 인간과 같은 실체대상이 부재할 경우에도 가상의 이미지가 존재하는 모순적 상황을 의미한다. 예컨대, TV중계방송의 시청자는 경기장 내에 없더라도 안방에서 원격 시청이 가능한 현실이 모순적 논리에 포함된다(강진숙, 2007, 17쪽). 이러한 논리적 모순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 요인에서 기인한다. 우선, 영상매체의 기술적 특성이다. TV와 영화 등의 ‘시각기계(Vision machine)’가 맥루한의 주장처럼 눈의 확장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멀게 만든다”(Virilio, 1998/2002, 147쪽)는 비릴리오의 명제에 응축되어 있다. 즉 아버지의 등과 같은 느린 운반체가 점차 TV와 영화, 디지털 매체 등의 광속 매체로 대체되면서 현실에 대한 감각의 마비와 비현실을 현실로 오인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TV생중계와 반복되는 동일한 자료 화면들은 이라크전의 참사와 부시 정부의 제국주의적 본질, 아프리카의 기아와 질병, 그리고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천재지변에 따른 대량참사와 같은 현실을 게임과 영화의 일부로 전락시킨다. 매체기술의 발전은 ‘여기 지금’이라는 시공간적 현실 감각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거나 문제의 원인을 망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강진숙, 2007, 17~8쪽).

또 다른 한편, 모순의 논리는 디지털 환경의 도래와 그로 인한 감각의 마비 현상에서 비롯된다. 이를테면 인터넷과 컴퓨터가 주요한 매체로 작동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모순의 논리는 디지털 이미지나 가상현실을 ‘사실인 것’으로 오인하여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혼란스럽게 인식되고 현실 감각의 마비가 초래되는 현상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강진숙, 2006). 그 이유는 한편으로 점진적인 정보의 디지털화가 생태 감각을 쇠퇴시키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화가 직접적 생태 감각 대신 인공적인 감각, 즉 인공적인 시청각과 촉각 및 후각을 점차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멀티미디어의 목적은 다가올 세계에 대한 예측과 진단에 있는 것이 아니다(강진숙, 2007, 18~19쪽). 주목할 것은 특정 권력과 자본의 이해관계가 낡은 TV를 소위 “가정용 망원경”으로 변화시키려한다는 것(Virilio, 1998/2002, 117쪽)이다. 바로 이 가정용 망원경을 통해 개인적 취미로서의 천체 관측이 아닌 감시권력의 작동이 시작된다.

그러면, 속도는 자본과 권력의 전유물인가? ‘정지는 곧 죽음’이라는 비릴리오의 언급은 가속화의 끝이 곧 인류의 파멸일 뿐이라는 것인가? 피상적인 관측으로는 속도의 끝, 정지는 인류의 파멸이지만, 궁극적으로 비릴리오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속도의 조직화이다. 즉 속도의 조직화와 생산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할 필요성(Virilio & Lotringer, 1997)이 그것이다. 질주의 논리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의 승패는 속도를 조율하여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는 것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방어의 느린 속도에 집중했던 고대의 공성전이나 어떤 지형의 장벽도 뚫고 넘어서는 강력한 운송장치, 즉 장갑차의 발명은 속도 조직화의 결과인 것이다. 비릴리오가 “장갑차의 등장과 함께 육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Virilio, 1977/2004, 133쪽)고 단언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들뢰즈와 가타리(1980/2001)가 부연하듯이, 바다는 영국 현존함대의 장이 되었고, 장소나 공간 이동의 필요 없이 임의의 한 장소에서 모든 주변 상황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전쟁 운송장치의 사례를 통해 비릴리오는 “교전 없이도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는” 순수권력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창조적 저항의 가능성(Virilio, 1977/2004, 24쪽)을 탐색하고 있다. 그의 문제의식은 두 가지 방향에서 포착할 수 있다. 즉 한편으로 비릴리오가 『순수전쟁』(1997)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인터넷과 미디어가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되고 있다면, 이러한 도시 공간의 군사화에 맞서서 과학기술의 논리를 역이용하는 창조적 저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창조적 저항은 시간의 전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또 다른 한편, 『소멸의 미학』(1989/2004)에서는 창조적 저항으로서의 ‘픽크노렙시(Picnolepsie)’에 대한 미학적 문제의식이 발견된다. 비릴리오는 ‘뇌신경 발작’을 지칭하는 이 의학 용어를 미학적 개념으로 변이시켜 ‘기억부재증’의 상황들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즉 픽크노렙시는 점차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시간전쟁에서 벗어나 “매개적 시간의 불안정한 구조에 의해 다른 누구의 시간도 아닌 나만의 시간을 살 수 있도록”(Virilio, 1989/2004, 51~52쪽)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요컨대, 중요한 것은 속도의 가속화가 아니라 오히려 ‘속도의 정지’를 통해 새로운 미학적 실험과 발명을 꾀하는 것이다.

(2) 키틀러의 기록시스템과 ‘정보기계’: 기술혁신과 속도 그리고 주체

비릴리오의 속도에 대한 사유가 드로몰로지, 즉 질주의 논리에 기초한 속도의 권력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키틀러의 핵심적 주장은 기록시스템과 속도 그리고 기계-주체에 대한 사유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사유는 주로 그의 대표적 주저들인 『기록시스템 1800·1900 (Aufschreibesysteme 1800·1900)』(1985), 『축음기, 영화, 타자기 (Grammophon, Film, Typewriter)』(1986) 그리고 『광학적 미디어: 1999년 베를린 강의 (Optische Medien: berliner Vorlesung 1999)』(2002/2011) 등에서 나타나는데, 공통적으로 문자시대의 담론체계에서 전자시대의 담론체제로 이행하면서 이성과 음성 중심의 근대적 인간관이 점차 해체되고 새로운 미디어의 저장 방식과 주체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파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여기서는 그의 주저들을 아우르는 두 가지 사유의 핵심들, 즉 기술혁신과 속도 그리고 주체에 대한 사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기술혁신과 속도에 대한 문제의식은 키틀러의 “기록시스템”과 “광학적 미디어” 개념들을 통해 파악된다. 전자의 경우, 1800년대와 1900년대 시기의 기록시스템의 차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여기서 키틀러가 정의하는 기록시스템이란 당대 문화로부터 나온 중요한 자료들의 주소화(Adressierung), 저장 그리고 가공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제도의 네트워크이다(Kittler, 1985). ‘기록시스템 1800’의 시기는 괴테의 <파우스트>와 ‘어머니의 입(Muttermund)’을 중심으로 한 낭만주의 시대로서 음성중심주의와 이성적 주체관이 중심된 시대이다. 예컨대, 키틀러가 설명하듯이 파우스트의 등장인물인 그레첸이나 어머니와 같은 여성들은 이야기와 음성을 통해 아이들과 남성들을 주도하지만, 저자와 창작자가 되기 어려운 시대적 한계를 지닌 존재들이다. 서적과 문자는 여성의 음성을

통해 교육되고 전파되지만, 문자를 독점하는 저자의 권력은 여성이 아닌 남성들이 전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축음기, 영화, 타자기의 발명을 통한 새로운 기술혁신은 ‘기록시스템 1900’의 시대로 이행하며 기존의 음성중심주의, 문자 독점을 통한 남성중심주의, 이성적 주체관을 어느 순간 붕괴시키게 된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붕괴되고 대신 소리와 이미지와 그리고 시간을 저장하는 새로운 기술적·제도적 조건, 즉 기록시스템이 생산된 것이다. 키틀러에 따르면, 1900년대의 시대로부터 배태된 사진, 영화, 텔레비전 등과 같은 아날로그 미디어의 가장 큰 혁신은 “시간적 과정을 저장, 조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다른 미디어 시스템 간의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것”(Kittler, 2002/2011, 27쪽)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혁신에 따른 시대적 이행과 변화는 점진적이거나 축적된 모순의 폭발에 의한 것이 아니다. 푸코의 고고학적 사유처럼 키틀러 역시 사회변화의 역사적 불연속성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즉 느리게 가는 것보다 필쩍 뛰는 것이나, 극의 긴 전개보다 전환점을 선호하며 나아가 생명체로서의 인간이 아닌 세계대전처럼 추상화된 것을 행위자로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키틀러의 저서 『광학적 미디어』의 서문을 맡은 존 더럼 피터스(John Durham Peters)는 “그에게는 언제나 꼭 설명해야 하는 (또는 폭로해야 하는) 더 거대한 현안이 있다”(Kittler, 2002/2011, 17쪽)고 키틀러 사유의 경향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불연속적 이행에 관심을 갖는 키틀러의 거대한 현안 중 하나가 기술혁신과 속도에 대한 관심이다.

기술혁신의 측면에서 키틀러는 미학을 희랍어 어원인 ‘감각(αἴσθησις)’으로 이해한다. 그에 따르면, 미학 연구는 미 자체가 아니라 지각기관의 물질성을 연구하는 것이다(Kittler, 2002/2011). 이는 푸코가 담론의 물질성에 천착하듯이 키틀러 역시 미디어시스템을 형성하는 물질적 조건과 기술공학적 토대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즉 “미학적 특성은 언제나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의존하는 변수”(Kittler, 2002/2011, 13쪽)라는 것이 그의 기술관인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이미지 자체 보다는 그 저장방식과 기술적 조건에 관심을 갖는 키틀러의 학문적 태도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키틀러는 비릴리오의 속도 인식과 맞닿아 있다. 비릴리오의 『전쟁과 영화』에 제시된 두 가지 중심주제, 즉 모순의 논리에 의한 시각기계의 작동방식에 대한 비판과 영화가 ‘군산복합체’였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특히 시각기계 대신 ‘광학 미디어’로 표현되는 키틀러의 속도관은 지난 100여 년 간 광학적 미디어가 폭발 성장한 요인분석에서 발견된다. 그 요인이란 더 빠른 정보의 전략적 요구, 즉 아군의 지휘 통제, 적군의 감시 통제, 특히 적군의 군사 행동에 대한 가능한 빠른 지휘 통제의 요구(Kittler, 2002/2011)에서 비롯된다. 즉 사진과 영화 등의 광학적 미디어가 발명된 맥락적 배경에는 군사적 목적과 산업적 이윤획득의 목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 사이에 나타난 오락영화 역시 군산복합체였다는 키틀러의 가설은 주목할 부분이다. 또한 키틀러는 기술혁신 자체에 대한 맹신 보다는 독점화 경향을 우려하는 비판적 시각을 나타낸다.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인텔의 동맹 관계, 즉 통합적인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그것의 보호모드기능(protected mode-Funktion)에 의해 이 기술에 대한 인간의 마지막 남은 주권이 박탈되었다는 것이 그의 비판 요점이다(Kittler, 1997; Hartmann, 2000/2008). 이제는 소수의 전문적 사용자들만이 무엇이 기계 내부, 즉 현실모드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반면, 대다수의 이용자 대중은 ‘이해할 수 없는 시물레이션’에 종속되어 있다는 견해이다.

그럼에도 키틀러에게 속도는 진보의 척도로서 단언되지 않는다. 시간 저장에 대한 그의 사유에서

불 때, ‘정지’의 순간이 만드는 미학적 행위들이 존재하고 이것은 기록시스템의 한 특징을 이루기 때문이다. 녹음기와 영사기의 저장능력이 나타내는 새로운 특징은 “시간의 저장 가능성”에 있었다(Kittler, 1986, pp. 10~11). 한편 시간은 모든 예술의 한계를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하다. 기본 데이터를 이미지와 기호로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정지작업을 거쳐야 한다. 예술에서 스타일은 바로 그러한 정지를 통한 이미지와 기호 선택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특히 담화의 소리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문학은 특정한 문자체계로 그 시퀀스들을 정지시켜 주변의 소음들을 처음부터 배제해야 한다. 이러한 사유와 관련해 크래머(Krämer)와 피터스는 키틀러의 핵심 업적을 “시간 축 조작(Time Axis Manipulation)” 개념을 확립한 데서 찾고 있다(Krämer, 2006, pp. 93~109; Kittler, 2002/2011, 18쪽). 그 이유는 키틀러가 시간 기반 미디어에 대해 탁월한 성과를 보일 뿐 아니라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시간의 흐름을 편집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진단하고 있다는 평가에 근거한다.

이러한 속도의 정지에 대한 인식은 비릴리오의 피크노랩시적 사유, 즉 기억부재증을 통한 주체적 시간의 회복 및 전유에 대한 관점을 연상케 한다. 특히 비릴리오가 강조하듯이 필름 영사기가 고장난 순간, 그 정지의 시간이 창출해낸 유명한 19세기 프랑스의 영화제작자 조르쥬 멜리에(Georges Melies)의 트릭효과는 속도의 정지, 즉 피크노랩시의 마법적 힘이라고 할 때, 시간의 저장 가능성과 정지에 대한 키틀러의 미학적 사유는 비릴리오와 상호 연관성 속에서 탐구해볼 가치가 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새로운 기록시스템의 특성과 변화가 기술적 문제에 그치게 아니라 주체의 존재론적 위상까지도 변화시켰다는 점이다. 이것은 키틀러의 기계-주체에 대한 사유를 통해 파악된다. 그의 독특한 어법 중 두드러진 예는 “소위 인간(der sogenannte Mensch)”이나 “정보기계(Informationsmaschine)”(Kittler, 1986, p. 29; Kittler, 1986, p. 281)라는 표현에서 나타난다. 우선 ‘소위 인간’의 표현은 키틀러의 반 휴머니즘적 사유를 반영한 것으로서, 등장 배경은 1880년경, 광학, 음향학 그리고 글쓰기 분야의 기술적 분화와 함께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독점적 지위(Speichermonopol)가 붕괴되자 등장했다. 이 ‘소위 인간’의 본질은 기계장치들 위에서 작동하는데, 이 기계들은 중앙신경체계의 기능들을 대신하고, 근육의 기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나타난 현상들 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물질과 정보 간의 명확한 분리가 생겨났다는 점, 축음기와 영화를 발명할 수 있었던 오래된 인간의 꿈들은 이 기계들에 의해 잠식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 신체의 부분들, 즉 눈, 귀, 뇌는 생리학의 연구대상이 되었다. 덧붙여 글쓰기는 더 이상 개인의 표현이나 신체의 흔적이 아닌 기계적 글쓰기의 최적화 수단으로 여겨진다. 문자의 형태, 차이 그리고 빈도는 최적화를 위한 일정한 공식들로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니체가 타자기를 구입하기 8년 전인 1874년, 스스로 질문을 던진바 있다. “이것들은 인간인가, 아니면 생각하고 글을 쓰고 계산하는 기계인가?”(Kittler, 1986, p. 30)라고 말이다. 그의 물음은 새로운 미디어와 인간 간의 관계설정에 대한 혼란에서 시작된다. 타자기는 기존 글쓰기의 방식을 바꾸어 놓은 기술적 혁신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기술혁신과 미디어 시스템의 등장에 따른 주체 재구성의 근거들이다. ‘소위 인간’이 생리학과 정보기술 내에서 분리된 이중적 존재의 위상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과 연관된 인간에 대한 키틀러의 독특한 개념이 ‘정보기계’(Kittler, 1986, p. 281)이다. 키틀러가 이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인간의 주체성을 물질과 기술, 그리고 이를 통해 구성된 문화의 산물로 보고자 하는 데서 기인한다. 즉 키틀러의 인간관은 주체성의 형식들이 시대적으로 생산되며 구성된 주체성은 다시 그 형식들을 구성하고 있는 담론영역 안에서 재구성된다는 푸코 이론에서

출발한다(도기숙, 2008b). 그런데 더 엄밀히 살펴보면, 이 정보기계 개념에서 키틀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 신체의 장애, 즉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는 읽기와 쓰기에 문제가 생긴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인간 정보기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게 된다. 이로써 기술을 통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역사의 실천주체나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기록시스템과 정보기계의 한 구성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키틀러는 미디어와 인간 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미디어는 우리의 상황(Lage)을 결정하는데, (그럼에도 또는 이 때문에) 그 사실은 기술할 만하다(Kittler, 1986, p. 3).”

그러면, 키틀러는 미디어 결정론 혹은 기술결정론자인가? 이러한 물음은 키틀러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들의 평가를 통해 탐색 가능하다. 우선, 독일의 미디어 철학자인 프랑크 하르트만은 키틀러의 사상을 사회적 효과와 기술적 효과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기술주의적 고고학”으로 지칭한다(Hartmann, 2000/2008, 229). 그의 평가에 따르면, 키틀러는 하드웨어 구조의 은폐된 관점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지만, 인터넷의 ‘도구적 이성’을 넘어서서 발생하는 것들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Hartmann, 2000/2008). 인터넷에는 생산자와 이용자 사이에, 집단과 도구 사이에 새로운 인터페이스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키틀러 저서의 해제를 기술한 피터스는 두 가지 전통에 대한 차별화 노력으로서 키틀러의 사유를 평가한다(Kittler, 2002/2011). 즉 해석학의 엄격한 텍스트 분석에 대한 차별화가 그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독일의 대표적 사상가들인 프랑크푸르트 학파와의 차별화이다. 전자의 이유는 해석학이 망자의 정신과 교감하려는 기대에 천착함으로써 읽기의 물질적, 매개적 조건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후자의 근거는 아도르노의 문화산업론을 필두로 이 학파가 현대사회의 표준적도, 특히 계량화에 대한 비판을 행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키틀러의 입장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상반된 입장에서 계량화의 긍정성을 옹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수의 문제는 기록시스템과 미디어 체계들의 변화를 이끄는 물질적 조건들의 한 부분으로 해석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그의 언급에 기초한다.

“컴퓨터에서는 모든 것이 수가 된다. 즉 이미지도, 소리도, 단어도 없는 양(量, Quantität)이 되는 것이다. 만일 광섬유 네트워크가 지금까지 분리되었던 모든 데이터의 흐름들을 디지털로 표준화된 수열로 융합시킨다면, 어떤 미디어든지 다르게 변형될 수 있다. 수(Zahlen)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변조(Modulation), 변형, 동기화; 슬로우 모드, 메모리, 전이; 스크램블링, 스케닝, 매핑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Kittler, 1986, pp. 7~8).”

요컨대, 디지털 기반 위에서 모든 미디어들이 연결된 결과 미디어 개념 자체는 폐기될 것이라는 게 키틀러의 예측이다. 즉 계량화를 위한 표준적도와 물질주의를 옹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디어 시스템의 변형과 속도 조절 등 다양한 기술적 혁신 및 작동방식에서 수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인식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 근거의 제시를 통해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 논문의 주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후속연구의 기회를 빌리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키틀러 연구자인 도기숙(2008a, b)의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편으로 키틀러의 기술전문용어와 후기구조주의적 개념들에 기초한 분석들이 독일 관념론의 휴머니즘적 전통에 반기를 들고, 나아가 푸코의 분석을 미디어 관점에서 재해석해 인간, 정신, 주체 등 인문학의 핵심 개념들을 완전 해체시키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 기술결정론적

문제가 있지만, 여성해방 담론에 대한 기여는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매체와 여성해방의 관계를 기술결정론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한계가 있지만, 여성과 사이버공간 담론의 지평을 확대했고 매체의 효과를 통한 사회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기술매체에 대한 여성의 참여가 여성해방의 정치적 관건임을 강조하는 키틀러의 입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2) SNS 학술담론의 흐름과 쟁점

그러면 위에서 논의한 속도와 권력 그리고 주체의 문제는 SNS와 이용자 문화와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고, 학술담론은 어떠한 흐름과 쟁점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SNS가 어떠한 방식으로 속도문화를 형성하고 있는지, SNS 속도문화에서 권력관계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SNS 속도문화에 대한 이용자 체험과 창조적 저항의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SNS의 기록시스템, 즉 SNS문화의 기술적, 제도적 조건은 다른 미디어 보다 빠른 속도의 가동성을 지니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자본과 권력의 영향 역시 기업들의 무차별 스팸광고, 사법기관의 SNS 검열 및 규제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장소 및 제한조건 등에 대한 무원칙한 변경 및 제한조치 등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들은 SNS를 이용해 다양한 창조적 저항 행위들을 감행하였는데, ‘SNS 투표 인증샷 놀이’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 종료 직전의 SNS 투표참여 리트윗 확산 현상은 전례 없는 이용자들의 창조적 저항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초점도 SNS 이용자들의 질적심층인터뷰 분석을 통해 보다 생생한 현장의 체험과 목소리를 도출하는 데 이와 같은 기초를 채택하고자 한다.

그러면, 국내 SNS와 이용자 관련 선행연구는 어떠한 흐름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가? 국내 언론학계에서 SNS 속도문화에 대한 논의가 미미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여기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SNS 관련 국내 언론학계 등재학술지 및 학술대회 발표 논문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자료 추출은 대표적인 국내 언론학계의 학회 홈페이지 논문검색 메뉴를 활용해 단일 키워드로서 ‘SNS’를 투입하였다. 총 4개 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등의 검색엔진을 작동시킨 결과 총 15 (6, 8, 0, 1, 이상 학회 순 추출 건수)건이 추출되었다. 여기서 0건이 나온 <한국언론정보학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미미한 논문 1건을 제외하고 총 14건을 중심으로 SNS 학술담론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표 1> SNS 학술담론의 주제 유형

사례	제 목	연도	발표지
1	소셜 미디어 시대, 우리는 행복한가?	2011	한국방송학회, 25(5)
2	온라인 소셜 미디어와 참여적 사회 자본	2010	한국방송학회, 24(5)
3	소셜 미디어 이용 동기가 사회 자본에 미치는 영향	2011	한국방송학회, 25(2)
4	스마트폰의 위치기반 SNS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11	한국방송학회, 25(3)
5	일본 후쿠시마 사태와 SNS	2011	한국방송학회
6	네트워크 유형 분류에 따른 SNS 사례분석	2011	한국방송학회
7	스마트폰, 커뮤니케이션 격차, 그리고 정치 참여	2010	한국언론학회, 54(5)

8	SNS 매개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참여	2011	한국언론학회
9	스마트 미디어와 SNS, 과연 커뮤니케이션 혁명의 도구인가(1)	2011	한국언론학회
10	스마트 미디어와 SNS, 커뮤니케이션 혁명의 도구인가?	2011	한국언론학회
11	스마트 미디어와 SNS, 커뮤니케이션 행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2011	한국언론학회
12	소셜미디어의 등장과 언론학의 과제	2011	한국언론학회
13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채택요인에 대한 척도개발과 타당화	2011	커뮤니케이션 이론, 7(2)
14	사회 연결망을 통한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필요성과 전망	2011	커뮤니케이션 이론, 7(2)
15	녹색성장 전략에서 IT의 역할과 정책 과제	2010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3)

분석결과, SNS 학술담론의 흐름과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SNS의 소셜미디어로서의 위상과 사회적 관계 변화에 대한 논의이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개념과 범주설정을 볼 때, 금희조의 연구(2010)는 소셜미디어를 “싸이월드와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일반적 블로그, 트위터나 미투데이 같은 마이크로 블로그, 인터넷 메신저나 온라인 채팅”(금희조, 2010, 10~11쪽)을 포함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로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소셜미디어의 역할론을 보면, 미국과 한국의 대학생들을 비교한 결과 소셜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시민참여와 사회운동에 모두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는 점, 절대적인 친교활동 참여량이 많은 미국 학생들과 달리 한국 학생들의 경우 소셜미디어를 많이 이용해 결속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 친교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연구는 SNS의 네트워크 속성과 사회적 관계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럼에도 SNS 네트워크 속성 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 또한 집단 간의 SNS 이용과 문화적 차별성에 대한 논의는 보완의 여지가 있다. SNS를 통한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속성만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물질적 조건들, 즉 기술적 조건과 사회, 문화 제도들의 영향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키틀러의 기록시스템 논리는 SNS의 물질적 조건들을 파악하는 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로 SNS의 정의 역시 앞의 학술적 규정과 범주를 참조하되 질적심층인터뷰를 통해 문화적 차원에서 재구성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SNS의 스마트미디어로서의 기능과 커뮤니케이션 형태 변화에 대한 논의이다. 권상희의 연구(2011)에서 SNS는 인간을 이어주는 1인 미디어, 또는 1인 커뮤니티로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주고 사이버 공간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해주는 인맥구축 서비스이고, 소셜미디어, 마이크로블로그 등으로 표현된다. 특히 사회적 공동의 목적(object)이 분명하지 않는 소셜미디어는 미래에 사라지지만, 목적이 분명한, 직업, 직장, 취미, 교육 등 공통된 목적과 관심사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소셜네트워크의 경우 전망이 밝은 것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SNS는 스마트폰과 모바일 서비스를 기반으로 확장되기 시작했고, 개인, 사회, 커뮤니티, 기업 내부 조직의 의견수렴 및 정보공유를 위한 중요한 역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연구는 스마트폰과 모바일 기반 SNS 서비스의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목적 기반 SNS의 전망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SNS 커뮤니케이션 형태의 변화를 조망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 덧붙일 것은 SNS를 형성하는 인적 측면과 자본·권력의 영향력에 관한 것이다. 즉 이용자들이 과연 SNS 커뮤니케이션을 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자본과 권력의 침투를 경험했는지, 또한 이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사회적 관계 형성의 변화는 어떻게 경험 및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비릴리오와 키틀러가 속도의 권력화 경향과 미디어

의 근산복합체적 속성을 비판한 점을 고려할 때, SNS 속도문화의 한 축인 디지털 자본과 권력이 속도를 도구화하는 방식과 이용자 환경의 오염 경향에 대한 분석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SNS의 사회적, 정치적 참여 가능성에 대한 논의이다. 황유선의 연구(2011)는 SNS 중에서도 트위터 이용자들의 정치적 관심과 사회참여의 관계가 지닌 함의들을 분석하고 있다면, 송현주의 연구(2011)는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차원에서 뉴스 미디어효과 연구에 편중되기보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 SNS의 사회적 연결망과 이를 통한 이용자의 정치참여 경향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넓힐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새로운 미디어와 이용자 환경에 대한 언론학적 접근태도 및 방법론의 전환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유의미하다. 그럼에도 후속연구로서 요구되는 것은 SNS 이용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적, 정치적 참여 기회들을 만들어가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비릴리오가 ‘창조적 저항’으로 표현한 이용자의 대안적 실천행위일 수도 있고, 혹은 미디어를 통해 재구성되는 주체 형태, 즉 ‘정보기계’의 행위일 수도 있다. SNS 속도문화와 창조적 저항에 대한 이용자 인식을 분석할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중요한 것은 SNS 이용자들의 사회적, 정치적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는 규정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 창조하고 저항하는지 혹은 정보기계로서의 접속 자체에 머물러 있는지에 대한 이용자 현실인식과 상황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SNS의 소셜미디어로서의 위상과 효과, 스마트미디어로서의 진화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참여 등에 대한 연구들이 전개되고 있고 각각의 의미 있는 성과들을 전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SNS 속도문화에 대한 연구는 언론학계에서 별반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이고, 특히 SNS 이용자의 창조적 저항성에 대한 질적 연구의 사례는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다음 장에서 기존의 언론학계 SNS 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속도문화와 이용자 실천의 측면에서 질적심층인터뷰를 통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앞의 이론적 탐구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 연구문제들을 설정한 이론적 근거는 비릴리오의 속도와 창조적 저항에 대한 사유, 그리고 키틀러의 기록시스템과 정보기계 에 대한 사유에 기초한다. 이러한 추상성의 수준에 있는 두 사상가들의 사유를 국내 SNS 속도문화와 이용자 행위에 적용하여 추상에서 구체로의 연구방법과 FGI를 이용한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실현하여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했고, 이것은 연구참여자들의 FGI를 위한 반개방형 설문기조로 활용하였다.

- 연구문제 1: 연구참여자들은 SNS 속도문화의 기술적 네트워크 속성을 어떻게 체험, 인식하고 있는가?
- 연구문제 2: 연구참여자들은 SNS 속도문화에 미치는 자본과 권력의 영향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연구문제 3: 연구참여자들은 SNS 속도문화의 변화를 위해 어떠한 창조적 저항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2) 연구방법

앞의 이론적 논의가 속도문화 및 이용자와 관련된 문헌연구 방법을 통해 진행되었다면, 앞으로 분석할 이용자 경험 및 인식사례는 초점집단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FGI) 방법을 사용하여 SNS 이용자들의 체험 및 인식자료를 수집, 분석하고자 한다. FGI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연구참여자들이 같은 시간 및 장소에 모여 다양한 의견 및 이견들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고(강진숙, 2010), 이를 통해 계량화할 수 없는 개인들의 심층적인 의견과 인식 사례들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집한 녹취 내용들을 전사하고, 여기서 추출된 주요 진술들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문제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는 SNS 이용자들 중, 전문직 종사자 5명, 대학생 및 대학원생 5명 등 총 10명을 선정하여 A, B그룹으로 구분한 후 2회에 걸쳐 FGI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 심층인터뷰의 목적은 20~40대 SNS 이용자 중 전문직 종사자와 대학(원)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SNS 속도문화와 이용자의 창조적 저항 사례 및 가능성을 도출하는 데 있다. 두 그룹으로 분리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한 근거는 사회 활동 중인 전문직 종사자 A그룹과 다른 B그룹, 즉 아직 수업참여와 논문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SNS 이용경험과 문화 인식 사이에는 차별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원)생의 경우 신문방송학 전공자들로 제한하여 전공과 연관된 보다 풍부한 미디어 이용경험과 인식 사례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A, B그룹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2>, <표 3>과 같다.

<표 2> A그룹: 전문직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연령/성별	소속	직위	주 이용 SNS	일일 평균 SNS 이용시간 (읽기, 쓰기, 리트윗 포함)	SNS 이용계기
전문가 1	44/남	문화 전문 연구소	소장	트위터	5시간	생활의 편의성, 디지털매체로의 생활환경 변화
전문가 2	42/여	수험생 전문출판사	대표이사	페이스북, 트위터	1~2시간	회사 프로젝트 수행, 연구 목적
전문가 3	34/남	문화예술 대학	외래교수	트위터, 페이스북	2시간 내외	스마트폰 구입 및 사용
전문가 4	32/남	공간 전문 연구소	선임연구원	트위터, 페이스북	5시간	가족 관계, 정보습득, 대인관계 유지
전문가 5	49/남	일반 단행본출판사	대표	트위터, 페이스북	1~2시간	호기심, 새로운 미디어의 적응 필요성

<표 3> B그룹: 대학(원)생의 일반적 특성

사례	연령/성별	전공	직위	주 이용 SNS	일일 평균 SNS 이용시간 (읽기, 쓰기, 리트윗 포함)	SNS 이용계기
대학생 1	24/여	신문방송학	대학생	페이스북, 트위터	12시간	친목, 정보공유
대학원생 2	29/남	신문방송학	대학원 석사과정	페이스북	10시간	미디어 이용 환경 변화
대학생 3	25/남	신문방송학	대학생	트위터, 페이스북	10시간	주변의 권유, 수업참여
대학원생 4	37/남	신문방송학	대학원 박사과정	트위터, 페이스북	8시간	대인관계 유지, 확장
대학원생 5	25/여	신문방송학	대학원 석사과정	트위터, 페이스북	10시간	타인과의 소통

인터뷰 설문기조는 앞의 연구문제에 기초하여 총 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설문 이전에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였고, 그 이후 총 세 가지 맥락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즉 SNS 속도문화의 기술적 네트워크 속성에 대한 인식, SNS 속도문화의 자본과 권력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영향력 인식 그리고 SNS 속도문화의 변화를 위한 이용자의 창조적 저항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의가 그것이다.

인터뷰 절차는 질적연구의 반개방형 인터뷰 방법을 따랐고, 이를 위해 우선 연구참여자들에게 e-메일을 통해 설문항목을 사전 공지하였고, 이 기초를 바탕으로 FGI를 진행하되 가급적 진행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연구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다. 인터뷰는 2012년 2월 13, 14일 총 2회에 걸쳐 서울 소재 대학교의 한 강의실에서 3~4시간씩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인터뷰 내용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확인 절차를 수행했다.

4. 분석결과

1) SNS 속도문화의 기술적 네트워크 속성 인식: “기록시스템으로서의 SNS와 속도”

우선, 연구참여자들은 SNS 속도문화의 기술적 네트워크 속성을 어떻게 체험, 인식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 Kittler가 언급한 ‘기록시스템’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인 네트워크의 기술적 속성과 주체구성의 문제와 연관된 것이다. 즉 기록시스템의 기술적 속성 변화가 이용자의 사유와 행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재구성하는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Kittler에 따르면, 기록시스템이란 중요한 자료들을 분류, 저장 그리고 가공을 가능케 하는 “기술과 제도의 네트워크”(Kittler, 1985, p. 501)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먼저, SNS가 어떠한 ‘기술적 네트워크’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속도의 범주에서 의견을 나누었다. 그 결과 의견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구분되었다. 즉 기술을 통한 네트워크의 속성은 관계 맺기, 기록 그리고 정보가치의 변화 방식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관계 맺기와 SNS 기술 속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관계 맺기’에서 표출된 SNS의 기술적 속성은 빠른 속도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과 소통방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즉 빠른 속도로 새로운 이용자와의 관계 맺기를 가능케 할 뿐 아니라 글쓰기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소통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문가 1>과 <전문가 3>은 SNS의 빠른 속도가 갖는 기술적 속성의 긍정적 측면을 시민들의 자발적 사회참여와 운동성에서 찾고 있다.

“소통의 변화는 SNS에서 일순위 경험으로 뽑아야 할 것 같아요. 길거리 응원으로 시작해서 촛불집회까지, 기존의 유희문화로부터 사회운동까지 소통이라고 하는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게 떠올랐죠. 사회운동, 시민운동의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서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운동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모집할 때 SNS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사람 동원도 지금은 SNS를 통해서 하지, 홈페이지에 글 남기고 해서는 보는 사람이 없어요.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사람들이) 집회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건 배너를 퍼나르기 시작하면서였어요. 개인적인 행위유형이라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 1>

“한국에서는 압축성장을 해서인지 고밀도사회이고 이슈들이 빠르잖아요. 그러한 성격과 맞물려서 정책적 이슈가 생겼을 때 트위터에 올려서 RT해서 모여 달라 순식간에 모여서 집회를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활용이 되었고. 사실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그렇죠.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 지도위원이 트위터로 세상과 소통을 했잖아요. 지치지 않고 진행했고, 희망버스 까지도 트위터랑 결합을 해서 활용되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 한국사회의 정치적 성향들과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한국의 속도 문화가 맞물려서 흥미로운 양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뭇수도 그렇구요.” - <전문가 3>

한편, 다른 연구참여자들 역시 SNS의 빠른 기술적 속도로 인한 관계 맺기와 소통방식의 변화는 인정하면서도 SNS의 유형에 따라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 관계 맺기와 소통방식의 측면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옹호하는 입장이 각각 분리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나의 입장은 트위터 옹호론이다. 이 입장은 여전히 트위터에 남아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무거운 의견도 나눌 수 있는 게 좋다”(대학생 3)는 의견과 “비밀계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밀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강한 유대관계가 나타나고 우리끼리 할 말만 왔다 갔다 한다. 비밀계정을 만들면 리트윗이 안되기 때문”(전문가 4)이라는 의견이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다른 입장은 페이스북 옹호론에서 나타난다. 여기서는 ‘왜 내가 트위터에서 페이스북으로 이동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즉 SNS 중에서도 기술적 속성의 차이로 인해 선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로 관계 맺기와 글의 기술적 처리방식 때문이다. 예컨대, 트위터가 페이스북보다 더 빠르지만, “트위터는 페이스북과 달리 내 글에 멘션이 오면 지울 수 없다”(대학생 1), “페이스북은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관계의 끈끈함과, 날아가 버리는 내 글들을 모을 수 있고 나와 관련 있거나 이해관계가 비슷하고 정서적으로 교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글을 항상 볼 수 있기 때문”(전문가 2)이라는 의견이 그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키틀러가 강조하듯이, 새로운 미디어의 기술적 조건이 주체들 간의 관계를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정치적, 사회적 사건들이

발생할 때, 분산되어 있는 이용자들을 연대의 주체이자 자발적 참여의 주체들로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기술적 조건의 차이는 각 주체들 간의 관계 정도를 재구성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끈끈하고 안정된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이들에게 트위터의 휘발성과 무제한 관계 맺기의 가능성은 오히려 무의미와 회의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2) 기록 방식과 SNS 기술 속성

두 번째로 기록방식의 변화에 나타난 SNS의 기술적 속성이다. 이 기록방식에는 SNS의 기술적 속성 중에서도 글쓰기와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루는데, 예컨대 트위터의 140자 제한이 대표적 예이다. 그러면, 140자 제한이라는 기술적 속성은 이용자들의 사유와 행동을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이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140자 제한의 기록방식은 잠언식 글쓰기의 문제(전문가 3), 이유나 근거의 부재(대학원생 2), 그리고 글에 대한 반복적인 수정작업과 오해의 발생을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내용을 따져보면, 잠언식의 발언들이 주를 이루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40자 안에 짧게 함축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앞에 서론, 본론을 제하고 결론만 던지는 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호오와 찬반 입장이 확 쏠리는 경향이 종종 보이기도 해요.” - <전문가 3>

“트위터같은 경우는 140자로 글이 제한되고, 페이스북도 그것보다는 길게 쓸 수 있지만 블로그보다 제한 되는데, 글들을 자세히 보면 어떤 주장에 대해 어떤 이유나 근거를 찾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누가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이 올리면 그 밑에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리고요” - <대학원생 2>

“트위터를 2년 전에 경험 했었는데 매우 놀라웠고, 글자가 바로바로 나가면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저는 출판계에 있다 보니 띄어쓰기 맞춤법들이 중요한데, 그 게 완전히 무시되는 상황이잖아요. 140자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다 집어넣어야 하니까, 수정을 반복하게 되요. 140자에 함축을 하다 보니까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구요. 해쉬태크 이런 것들을 붙여서 하기는 하는데, 귀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대해 관심이 있지 않고서는. 오프라인에서 글 쓰는 게 습관화된 사람들은 140자의 제약이 굉장히 커요.” - <전문가 2>

반면, 트위터의 140자 제한에 대한 긍정적 시각도 표출되었다. 예컨대, <전문가 5>는 “함축적인 표현을 많이 쓰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전문가 4>는 빠른 속도의 읽기가 수월해졌고, 생각하는 즉시 글을 쓸 수 있는 작업환경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전 솔직히 140자 제한이라는 것이 테크닉적으로는 전혀 부담이 안 간다고 느낍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트위터 계정들을 보면 링크를 걸어놔요. 때문에 오히려 긴 글을 더 많이 볼 때가 있어요. 누르고 나면 블로그나 (뉴스)기사로 이동하면서 보는 게 많기 때문에 제약점이라고 생각되지 않구요. 속도면에서도 읽는 것은 좀 빨라졌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전에 기사들이 단편적인 기사들과 연성적인 기사들이 많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많아지긴 했죠. 그런데 속도의 차이를 보면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글을 쓸 때 제

생각을 바로 직접 넣을 수 있어서 좋아요. 여기서는 제가 디지털 기술을 가장 어렸을 때부터 접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저희한테는 그렇게 글을 쓰는 것이 편한 것이 되는 거죠.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게 더 편하고, 한번 초안을 만들거나 지우는 것은 불필요한 작업이 되는 거죠.” - <전문가 4>

(3) 정보가치와 SNS 기술 속성

마지막으로 정보의 가치 변화에 나타난 SNS의 기술적 속성이다. 이것은 주로 이용자가 트위터의 타임라인을 통해 실시간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고 속도를 기준으로 정보의 내용과 주장에 대해 가치 판단하는 태도와 연관된다. 즉 빠른 속도의 실시간 SNS 정보를 접하면서 정보의 가치 판단척도가 ‘속도’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경우가 그것이다. <대학원생 2>는 이러한 정보의 가치 변화를 속도의 문제에서 찾고 있다. 즉 빠른 속도의 SNS 이용습관과 태도로 인해 학술논문의 정보가치까지도 빠름과 느림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다는 성찰이다.

“이제는 불과 몇 분 전, 몇 시간 전의 내용도 마치 옛날처럼 느껴지게 되요. 문제는 단순히 조금 전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데 멈추는 게 아니라, 오래됐으니까 의미가 없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료검색을 위해서 학술 논문을 찾을 때, 2010년 논문만 해도 너무 오래돼서 보기 싫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머리는 그게 아니라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다보니 생각이 너무 몸통만 보고 앞뒤를 바라보지 못하는 근시안이 되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트위터를 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트위터를 몇 달 동안 안 했던 기억이 있어요. - <대학원생 2>

이처럼 정보의 가치 척도가 속도가 되었다는 의견과 유사한 맥락에서 <대학원생 4>는 SNS의 빠른 속도가 정보의 원본, 즉 진위 파악을 어렵게 만들어 본래의 논쟁과 논점을 희석시킨 여론몰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저는 뉴스나 정보를 얻는 차원에서 트윗(트위터)이나 페이스북(페이스북)을 항상 보거든요. 직업상 24시간 중에 8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트윗이나 페이스북을 열어 놓고 있거든요. 비교적 타임라인이나 담벼락에 쌓여있는 것을 다 쟁겨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트윗이나 페이스북에서 최초 정보가 발설 됐을 때 그 속도를 쫓아 갈 수 없고, 어떤 사건이나 중요한 정보의 뉴스의 진위나 최초 출발점을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죠. 정작 중요한 것은 진중권, 공지영이라던가 트위터 상에서 설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의 근원은 사라지고 진중권을 까는 사람과 진중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쟁만 남아있을 뿐이지 진중권의 최초 발설 트윗은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요. 뉴스의 정보가 매개되고 전달되는 속도가 진정한 뉴스의 근원들은 거세시켜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SNS이용자들은 그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속도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미디어라고 생각해요.” - <대학원생 4>

키틀러와 비릴리오가 우려한 것 역시 속도 자체가 아니라 속도가 주체의 사유와 행동을 재구성하는 방식에 있다. 즉 키틀러가 주장하듯이 인간은 시간적 과정을 저장, 조작하는 기록시스템의 한 구성성분이고 정보기계라는 점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게 현 SNS 환경의 현실이다. “미디어가 우리의 상황을 규정한다”(Kittler, 1986, p. 3)는 키틀러의 언명은 바로 정보기계로서의 이용자 상황에 대한

경고이자 또 다른 한편 역이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치 비릴리오가 문제는 속도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속도가 되는 것에 있다고 경고하는 것처럼, SNS의 빠른 속도 속에서 이용자는 속도가 되고 있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속도의 빠름과 느낌을 선과 악, 가치와 무가치로 선택하고 배제하는 힘의 원리들을 포착하는 데 있다.

2) SNS 속도문화의 자본과 권력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영향력 인식

그러면, 연구참여자들은 SNS 속도문화에서 자본과 권력의 문제를 어떻게 체험, 인식하고 있는가? 여기서 자본의 범주는 기업의 SNS 활용과 상업주의를 포함한다면, 권력의 문제는 전체주의적 성격이 내재해 있는 국가권력에서부터 집단주의의 문제까지 포괄해서 열어 놓고 의견을 나누었다. 그 결과 SNS 속도문화에 대한 자본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으로 대별되어 나타났다. 하나가 자본과 권력의 영향력이 SNS를 잠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그 우산 아래에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전자의 경우 SNS의 자본과 권력의 활용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시각에 기초한다. 그 이유는 SNS가 “기업에서 활용되어 회사의 소식과 친근한 이미지를 어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출판사 대표인 <전문가 5>의 경우 “트위터의 팔로워 중에 책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출간의뢰를 받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고, 실제로 SNS를 통해 연결된 사람으로부터 받은 원고가 실제 출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역시 “상업적인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예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정 시간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올려서 손쉽게 홍보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하며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지만, 선용할 경우 SNS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중요한 ‘도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 3>은 또 다른 시각에서 자본과 권력의 영향력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기업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해 이윤 획득을 꾀할 수 있지만, 트위터의 경우 기술적 조건 상 이용자의 필터링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이 활용을 한다면 광고인데, 트위터는 자기가 팔로잉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이 자기광고를 하고 싶다 해도 이용자에게서 걸러지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쉽지 않아요. 이벤트 같은 것을 할 때 광고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이상 외면당하기 쉽고요. 페이스북은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를 페이스북에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맞춤형 광고를 제공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정보랄 게 별로 없고, 간단한 인적사항만 제공하고 계정을 쉽게 만들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차별화된 개인 맞춤형 광고를 하기에 적합한 플랫폼은 아니에요.”
- <전문가 3>

반면, <전문가 2>와 <전문가 4>의 경우 앞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전문가 2>의 경우, SNS 접근의 동기가 개인의 자발적 태도의 발로가 아니라 주로 광고나 사회 조직, 기업 등의 직·간접적 ‘강압’을 통해 형성되고 실현된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SNS에서 광고가 두드러지게 가시화되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이 광고에 노출된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부지불식

중에 유출되는 과정들이 문제라는 인식이다. 또한 <전문가 4> 역시 SNS에서 체험한 기업의 영향력에 대해 비판적 시각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기업 정보통신업체들이 이용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기업광고나 파워유저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의 사례와 같은 페이스북의 문제들을 비판하고 있다.

“페이스북에는 아예 광고페이지가 있거든요. ‘아 여기도 이제 광고가 잠식하고 있구나’ 하고 직접 느꼈죠. 또 지나치게 광고하는 사람들은 제가 친구나 팔로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걸리지지만, 굉장히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간접광고하면서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KT가 무엇을 하는데 감성에 호소를 하면서 들어오는 기업광고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SNS를 통해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일종의 파워유저들을 활용해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조금 눈살이 찌푸려져요. 어쨌든 거대 기업쪽은 앞으로 SNS에 침투할 것이고, 기업광고가 아닌 것처럼 해서 들어오려는 확률이 높아요.” - <전문가 2>

이러한 감성의 소구효과와 관련하여 더욱 큰 문제는 SNS 대화를 통한 기업의 ‘인격화’ 경향이다. 즉 마치 자본이나 물건이 승배의 대상이 되는 물신주의 경향처럼 SNS를 통한 기업의 이미지가 희로애락을 겸비한 인격체로 오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릴리오에 따르면, 도시공간의 군사화는 직접적인 물리력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논리를 활용하는 데서 출발한다. 직접적인 교전 없이도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 ‘순수권력’의 장점이기 때문이다(Virilio, 1977/2004, 24쪽). 또한 Kittler가 생물학적 인간이나 근대적 사유의 주체 보다 ‘정보기계’(Kittler, 1986, p. 281)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기계와 인간이 서로 접속하고 얽혀 있는 광학미디어의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질이 기계장치들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업은 SNS 장치들 위에서 인간이 되고자 한다. ‘소위 인간(der sogenannte Mensch)(Kittler, 1986, p. 29)’이 되는 목적은 물론 통신기계의 판매와 이윤 획득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력을 얻는 데 있다.

“SNS상에서는 삼성이나 KT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담당자와 개인의 문제가 됩니다. KT라는 거대 기업이 아니라 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KT 같은 경우 선두적으로 담당자를 기용하는 경우인데, 개인적인 대화도 주고받고 회식도, 이벤트도 하는 식입니다. KT에서 아이폰 발매가 연기되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담당자 자신이 죄송하다고 하며 울었다고 트윗을 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인간적인 면모를 보고 녹아 들어간 거죠. ‘그래 저 담당자가 무슨 죄가 있겠어’ 하면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는 여론이 생겨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기업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담당자가 단순히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일이 생긴 거죠, 사람이 사람을 잘 알면 욕을 못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SNS와 기존매체들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런 속성을 자본 기업이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 것 같고요.” - <대학원생 2>

이러한 자본의 활동 상황에서 국가권력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러한 물음에 연구참여자들은 “정치 지방생들의 권력과 자기 홍보 도구가 된 SNS”(대학원생 4), “한 여권 후보의 공지사항 전달에 그친 SNS 이용 수준과 몰이해”(대학원생 1), “선거와 권력의 알비들이 타임라인을 도배하는 네거티브 전략”(대학원생 5) 등의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특히 정책적 차원에서 최근에 목도된 “SNS 정책관 모집 문제”(전문가 4)는 전문성의 확보가 아닌 정보 통제 목적이라는 점에서 비판되었다.

“방통위의 SNS규제는 우선, 전파력과 속도성이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전의 인터넷, 즉 블로그나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전파력에 방점을 찍었다고 하면, 트위터의 경우에는 짧게 계속 올리고 링크를 걸 수 있으니 속도성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부처에서는 SNS 정책관을 만들고 있더라구요, 구에서도 SNS 정책관을 다급(3~4급)으로 모집하고 있어요. 정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보자, 어떤 쪽으로 몰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파력을 통제하려는 집단들은 아직까지도 전파력까지 밖에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 <전문가 4>

마지막으로 SNS와 대중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문제는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대중의 집단주의와 여론몰이 경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에 대해 <전문가 1>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이유로 제기하며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상식에 집중되는 SNS 이용자들의 여론 집중화 경향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 2>는 트위터 이용자 집단의 권력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저는 주로 <다음>에서 SNS의 대중적 흐름을 주시합니다. 여기서도 어떤 규칙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관심을 가졌어요. 일차적으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액션의 규범과 가치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정직해야 한다’, ‘줄서서 기다려야 한다’, 이 정도 수준이죠. 그런데 그 수준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야말로 ‘열폭해서’ 사람들이 달려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쉽게 해석될 정도로 분명한 사안일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나, 현상에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심도가 떨어져요. 또 가치와 규범같이 일반 상식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자기의 얘기를 하고, 연령·세대를 다 초월하는 발언들을 쏟아내죠. 그래서 반응 시간을 줄이는 요소들 중 하나인 속도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과 가치에서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를 이끄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규범이나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사회고, 상식도 기준도 없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없고, 이런 상황이 사람들에게 열폭하는 기회가 되는 게 아닐까요?” - <전문가 1>

“트위터도 당이라는 게 있고 페이스북도 그런 종류의 여러 가지 그룹페이지들이 나오면서 힘을 가지려고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실용적인 부분에서 끝나는 경우는 꽤 많은데 정치적인 액션도 수반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속도를 내서 무언인가 멘션을 하고 있다기 보다 SNS의 특성상 그 곳에 글들을 올리고 움직이다 보면 자연히 속도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해관계가 많이 부딪치는 부분도 있어요.” - <전문가 2>

요컨대, 연구참여자들은 SNS 속도문화에서 자본과 권력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기 보다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자본의 확대재생산과 빠른 회전을 욕망하는 기업들에게 SNS는 인격화의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출판사와 자영업의 경우 저자 및 소비자와의 SNS 대화를 통한 소통 기회의 확대로서 인정할 수 있다 해도, 최근 대기업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표출되고 있는 SNS 담당자를 내세운 기업 인격화는 ‘디지털 물신주의’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인격화의 주된 관심은 합리적 경영과 소비자 참여 서비스에 있기 보다는 인정주의에 기반한 기업 오류와 사회적 책임의 회피에 있기 때문이다.

3) SNS 속도문화의 변화를 위한 이용자의 창조적 저항에 대한 인식

그러면, SNS 속도문화의 변화를 위해 이용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SNS 이용자의 위상과 특성, 그리고 역할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의견들을 피력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전문직 종사자들의 입장은 다중으로서의 위상과 자발성 그리고 적극적인 권리 찾기와 연대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표출되었다. 예컨대, SNS 이용자의 위상과 특성의 측면에서 SNS 이용자가 군중인지 다중인지에 대한 맥락적 판별이 요구된다는 주장(전문가 1), SNS 이용자가 ‘정보단자’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전문가 3), ‘인증샷’ 등을 통한 자발성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입장(전문가 2), 1987년 시민혁명의 수혜를 받는 데서 나아가 참여와 연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전문가 4), 그리고 SNS의 특성을 살린 권력 평가와 선거를 통한 창조적 저항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전문가 5)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른 한편, 전문직 종사자들의 이용자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추상성의 수준에서 진보적인 가치 지향을 나타냈다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입장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 문제의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이용자의 창조적 저항 방법에 대한 의견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참여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경우 아직 사회적 지위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제약 없는 상상력의 발현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아가 20~30대로 구성된 이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이미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직업상의 목적을 떠나 일상의 기록시스템과 관계 형성의 장으로서 SNS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연구참여자들은 SNS의 창조적 이용 방법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 의견들 중에 두드러진 내용들만 간추린다면, 우선 전 세계 이용자들이 스스로 촬영한 사진을 올려놓는 ‘인스타그램’ 어플을 이용해 전 세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진 프린트된 옷을 선물하는 방법(대학생 1), 롱테일 맞춤형 판매로 승부한 아마존 닷컴처럼 다른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거나 SNS의 빠른 속도를 역이용한 선거 ‘인증샷’ 놀이(대학원생 2), ‘인증샷’ 등 트위터를 통한 ‘놀이’로서의 권력에 대한 저항 창출(대학생 3), 페이스북의 한 클럽인 ‘전국홍보대사연합’을 통해 인적, 물적자원의 교류, 프리허그를 통한 기부문화 창출, 스타벅스의 동양인을 비하하는 ‘찢어진 눈’의 표현행위에 대한 트위터 고발 등 SNS 속도문화를 적극 활용하는 행위들(대학원생 5)이 강조되었다. 이 중에서도 <대학원생 4>의 창조적 저항의 유형과 방법에 대한 의견은 주목할 만하다.

“창조적 저항이라고 할 때, 일상에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국면들과 한진중공업, 나꼼수를 비롯한 대안적인 뉴스 제작, 나꼼수가 대안적인 뉴스를 표방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최근 1년간 관찰 할 수 있었던 대표적 (대안적) 사례들인 것 같구요. 흥미로운 것은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상화를 시키는 전략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구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트위터 친구들 중에는 YTN 해직기자도, 뉴스타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꼼수, 뉴스타파, 폼사리, 애국전선처럼 그런 것들을 SNS 밖에서 만들고 다시 트위터로 가져오는 거죠. 그게 전달 매개가 되고, 확장되고, 다시 의견이 모아져서 그 흐름들이 순환적인 구조를 이루는 거죠. 그런 흐름들이 트위터를 통해 만들어져야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대학원생 4>

여기서 중요한 것은 SNS 속도문화를 변화시키고 주도하는 힘이 기술적 시스템과 미디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내부와 외부를 매개하고 자극하는 과정에서 촉발된다는 점이다. 즉 SNS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국면과 사건들 속에서 이용자들 간의 연대를 통해 인적, 물적, 지적 자원의 즉각적 교류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제도권 TV나 신문매체 등에서 선택되지 못한 채 배제되었던 사건과 의견들이 SNS를 통해서서는 상식과 규범, 보편적 가치의 기준에 따라 새롭게 재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SNS 이용자들의 창조적 저항과 관련해 성찰이 필요한 것은 과연 SNS 이용자들이 기술적 네트워크로서 SNS의 속성을 간파하고 있는지, 또한 제도적 네트워크로서 기업과 국가권력으로 대표되는 자본과 권력의 작동방식을 인지하면서도 무관심으로 지나치는 것은 아닌지, 나아가 빠른 속도의 SNS 정보흐름에 휩쓸려 ‘중지는 곧 죽음’이라는 모토 속에서 그 흐름에 무작정 나를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진득한 고민이다. 이러한 성찰과 고민의 화두를 연구의 말미에 제기하는 이유는 SNS 속도문화가 2000년대 기록시스템의 전형적 특징이기 때문이다.

키틀러가 다양한 고증을 통해 설명하듯이, ‘기록시스템 1800’은 어머니의 입과 남성 작가의 글쓰기, 인쇄술의 발달로 상징되는 음성중심주의와 근대적 주체관이 중심이 된 낭만주의 시대라면, ‘기록시스템 1900’은 사진, 영화, TV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적·제도적 조건이 형성된 아날로그 기록시스템의 시대이다. 이제 새로운 성찰과 분석이 필요한 시대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기록시스템 2000’의 시대이다. 인터넷, 휴대폰, 태블릿 PC의 등장과 대중화는 SNS를 통한 새로운 기록시스템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성찰은 단지 정치권력과 자본 그 자체의 감시에서 머무를 수 없다. 새로운 ‘기록시스템 2000’은 그 어느 시대보다 이용자 대중의 기술적 이해와 창조적 이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SNS의 빠른 속도문화는 자본과 권력의 작동 메커니즘을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용자들의 관심은 그것을 넘어서는 기술적, 제도적 네트워크의 작동방식의 이해와 역이용의 가능성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비털리오의 ‘창조적 저항’이 과학기술의 원리를 이용하는 행위이지만, 또 다른 한편 ‘피크노랩시’ 같은 ‘중단’ 혹은 ‘정지’의 미학을 창출하는 행위 역시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SNS의 규제에 대한 저항으로서 이용자들의 ‘한시적 SNS 이용 중단’ 행위나 SNS를 정지하고 ‘희망버스’나 광장에 몸을 싣는 행위 등이 소중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속도의 중단과 정지는 새로운 속도의 창출과 재구성의 가능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완전한 중단과 정지는 없다. 죽음도 나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지속의 행위이니까 말이다.

5. 맺음말

주지했듯이 이 연구는 속도의 권력화와 물질적 조건들에 대한 사상적 쟁점들을 탐구하고, SNS 속도문화와 창조적 저항의 형성 조건 및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세 가지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FGI 방법을 사용해 SNS 속도문화와 창조적 저항에 대한 체험과 인식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우선, SNS 속도문화의 기술적 네트워크 속성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체험과 인식은 크게 세 가지 흐름 속에서 포착되었다. 즉 기술을 통한 네트워크의 속성은 관계 맺기의 측면에서 빠른 속도의

취발성 관계(트위터)에서 벗어나 보다 끈끈하고 안정된 관계 맺기를 추구하는 경향(페이스북)이 나타났고, 기록의 측면에서 트위터의 140자 제한이 함축적 언어로써 이슈의 흐름에 대한 빠른 평가와 대응을 하게 하지만, 역으로 비성찰적 반응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가치의 변화 측면에서 SNS의 빠른 속도가 최근 정보와 자료들까지도 낡고 무가치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의견 등이 표명되었다. 이러한 세 가지 SNS 속도문화의 주요 특징은 기술적 네트워크인 기록시스템의 한 속성으로서 파악되었다.

둘째, SNS 속도문화에 미치는 자본과 권력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인식은 앞의 기술적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기록시스템의 또 다른 속성, 즉 제도적 네트워크의 속성과 연관된다. 분석결과, 기업과 자본의 영향력은 트위터보다 주로 페이스북에서 감지되었고, 반복적인 감성적 소구와 기업의 인격화 방법을 통해 작동된다는 비판적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국가권력의 측면에서 방통위의 규제조치와 SNS 정책관 모집 사례, 그리고 감시와 통제의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피력되는 한편, 사용자들의 집단주의와 여론몰이, 그리고 해석능력과 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SNS 속도문화의 변화를 위한 창조적 저항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인식은 SNS 이용자의 위상과 특징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 이슈가 되었던 ‘인증샷 놀이’와 같은 ‘놀이’로서의 저항, 인적·물적자원의 상호 교환을 통한 SNS 클럽의 활성화 그리고 SNS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허물고 집단지성의 가능성을 보여준 ‘김진숙과 희망버스’ 같은 창조적 저항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상의 연구는 비릴리오와 키틀러의 주요 개념과 사유들을 국내 문화정치적 사례들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공감하는 바는, 자신이 SNS 중독자라는 점이었다. 독서를 하는 데 중단해야 할 디지털 기계들이 많고, 잠시 휴가와 MT를 다녀오면 산적한 타임라인의 정보와 논쟁들을 복습하기에는 24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끼는 연구참여자들은 SNS 중독자였고, 자인하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그 중독은 자아를 상실하고 욕망을 차단하는 극단의 폐허가 아니라 사건의 진위와 발단을 추적하는 연구자로서, 직업적 성과와 장애의 해결을 위한 인적, 물적자원의 교류자로서, 그리고 기부나 저항을 위한 소담한 연대의 행위자로서 자신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하는 기록제로서 느껴진다.

이러한 발견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전문직 종사자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연구참여자로 제한시켰다는 점에서 보완의 여지가 있다.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서도 SNS 이용자들 중에서도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위상을 지닌 장애인, 이주 청소년, SNS 규제 조치를 당한 경험이 있는 일반 이용자들을 연구참여자로 확대하여 연구의 다변화를 꾀하고자 한다. 미디어는 상황을 결정한다, 하지만 그 상황 이전에 발생의 복합적 원인들이 이미 존속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Ⅰ 참고문헌

- 강진숙 (2007). UCC 영상문화의 함의와 문제점 연구. 『한국방송학보』, 21권 6호, 9~43.
 강진숙 (2006). 탈문자시대의 미디어 문화와 이용자에 관한 이론적 연구. 한국출판학회, 『한국출판학 연구』, 제51호, 5~33.

- 강진숙 (2010). 1인 미디어로서의 블로그 이용문화와 기술적 상상. 『언론과 사회』, 18권 3호, 2~34.
- 권상희 (2011). 스마트 미디어와 SNS, 커뮤니케이션 행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한국언론학회 2011년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 금희조 (2010). 온라인 소셜 미디어와 참여적 사회 자본. 『한국방송학보』, 제24권 5호, 9~46.
- 도기숙 (2008a). 기술매체의 변화와 새로운 인간학: 프리드리히 키틀러의 매체이론을 중심으로. 『독일문학』, 제108집, 191~210.
- 도기숙 (2008b). 타자기와 여성해방: 키틀러의 매체이론에 나타난 기술과 여성의 문제. 『독일어문학』, 제43집, 309~328.
- 송현주 (2011). 사회 연결망을 통한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필요성과 전망. 『커뮤니케이션이론』, 제7권 2호, 75~104.
- 황유선 (2011). SNS 매개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참여. 한국언론학회 2011년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 Berman, M. (1982). *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 the Experience of Modernity*. 윤호병 외 역 (2004). 『현대성의 경험』. 서울: 현대미술사.
- Castells, M. (2000).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김묵한·박행웅·오은주 역 (2003).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서울: 한울.
- Castells, M. (1989). *The Informational City*. 최병두 역 (2001). 『정보도시』, 서울: 한울.
- Deleuze, G. & Guattari, F. (1980).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2*. 김재인 역 (2001). 『천개의 고원』. 서울: 새물결.
- Feyerabend, K. (2005). *Langenscheidt's Pocket Greek Dictionary: Classical Greek-English*. Berlin and Munich: Langenscheid.
- Flusser, V. (1969~91). *Lod der Oberflächlichkeit, für eine Phänomenologie der Medien*. 김성재 역 (2004). 『피상성 예찬: 매체현상학을 위하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Hartmann, F. (2000). *Medienphilosophie*. 이상엽·강웅경 역 (2008). 『미디어 철학』. 서울: 북코리아.
- Kittler, F. (1985). *Aufschreibesysteme 1800/1900*. München: Wilhelm Fink.
- Kittler, F. (1986). *Grammophon, Film, Typewriter*. Berlin: Brinkmann & Bose.
- Kittler, F. (1997). Protected Mode. In J. Johnston (Ed. and intro.), *Literature media: information systems* (pp. 147~155). Amsterdam: OPA.
- Kittler, F. (2002). *Optische Medien-berliner Vorlesung 1999*. 윤원화 역 (2011). 『광학적 미디어: 1999년 베를린 강의: 예술, 기술, 전쟁』. 서울: 현실문화.
- Morwood, J. & Taylor, J. (2002). *Pocket Oxford classical Greek Dictionary*. Oxford Uni. Press.
- Poster, M. (1984). *Foucault, Marxism and History: Mode of Production versus Mode of Information*. 조광제 역 (1989). 『생산양식 대 정보양식: 푸코와 맑스주의』, 서울: 민맥.
- Poster, M. (1995). *Second Media Age*. 이미옥·김준기 역 (1998). 『제2미디어 시대』. 서울: 민음사.
- Virilio, P. & Lotringer, S. (1997). *Pure War*. (M. Polizzoti, Trans.). New York: Semiotext(e).
- Virilio, P. (1977). *Vitesse et Politique*. 이재원 역 (2004). 『속도와 정치』. 서울: 그린비.
- Virilio, P. (1989). *Esthétique de la Disparition*. 김경은 역 (2004). 『소멸의 미학』. 서울: 연세대 출판부.
- Virilio, P. (1993). *L'Art du Moteur*. 배영달 역 (2007). 『동력의 기술』. 부산: 경성대출판부.
- Virilio, P. (1998). *La bombe informatique*. 배영달 역 (2002). 『정보과학의 폭탄』. 서울: 울터.

ABSTRACT

Dromological Paradigm and Creative Resistance of SNS: Focusing on Virilio and Kittler's Theories of Speed and Subject

Jin-Suk Kang*

This study explored possibilities and conditions of the SNS dromological paradigm and creative resistance in SNS era. For solve this theoretical questions, I analyzed authority of speed and material conditions. In order to attain this achieve, reviewed Virilio's theories which is criticizing speed, power and sense of artificial. And also studied Kittler's theories about material conditions, 'Information Machine'.

Following those theoretical base, this study find social issues and advanced research's propensity for connecting SNS dromological paradigm. Furthermore, I designed depth interview to find SNS users think and experience. This study's significance of result is expanding cultural study filed in SNS approach and provided that exploratory sight.

Keywords: SNS, Twitter, Facebook, Dromological Paradigm, Virilio, Kittler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Mass Communication, Chung-Ang University(jskang1@cau.ac.kr)